

# 유아의 성별과 연령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이 유아의 자조기술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Children's Sex, Age and Parental Feeding Styles on Children's Self-help Skill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이정민\*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김진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Master Candidate : Lee, Jung-Min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earcher : Kim, Jin-Kyung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ree factors - children's age, sex and parental feeding styles - on children's self-help skills. The subjects were 213 children and their parents who lived in Kwanak-ku, Seoul. The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was employ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Children's autonomy wa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ir sex. Girls do better by themselves than boys do in toileting, washing and drying hands, putting on and buttoning up a coat, putting on clothes, washing and drying their faces. Children's autonomy also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A majority of the autonomy subsets increased as the children's ages increased. However, drying their hands with a towel, removing their coats, and drinking water did not vary by age.
2. Children's autonomy also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ir parents' feeding style. A responsive feeding style encouraged children to drink water by themselves.
3. The group with the highest score in self-help skills in toileting was 6-year-old girls, and the group with the lowest score was 3-year-old boys. Additionally, the groups with the highest scores in toileting were 4-year-old girl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 neglective feeding style, 5-year-old girl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n authoritative feeding style, 5-year-old girl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 responsive feeding style, 3-year-old boy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 responsive feeding style and 6-year-old boy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 neglective feeding style. Conversely, the groups with the lowest scores in toileting were 3-year-old girl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n authoritarian feeding style, 5-year-old girl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 neglective feeding style, and 3-year-old and 6-year-old boy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n authoritarian feeding style.
4. The group with the highest score in removing their coats was girl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uthoritative, responsive or neglective feeding styles. The group with the lowest score in removing their coats was boys whose parents demonstrated authoritative or neglective feeding styles.

---

▲주요어(Key Words) : 자조기술(Self-help skills), 자율성(autonomy), 연령(age), 성별(sex), 식사지도유형(feeding styles)

\* 주 저 자 : 이정민 (E-mail : noi24@snu.ac.kr)

\*\* 교신저자 : 김진경 (E-mail : holyjin77@hanmail.net)

## I. 서론

자율성은 외부의 어떤 권위나 제재의 개입 없이 자기 결정에 의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 규범, 규칙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자유를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4). 걸음마기 유아는 예전에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하던 보호자로부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바라본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하고자 하면서 자율성을 발달시킨다. 이 때 자율성 실현 의지를 지지하고 돕는 양육을 받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한국유아교육학회 편, 1996, 박진희, 2008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을 받았을 때 아동의 학업성취도, 사회적 유능감 및 내재적 동기화가 높아진다(Grolnick & Ryan, 1989). 또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창조성, 인내력, 지속적인 학습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자율성은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상으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 및 이를 토대로 한 지도방침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성은 이른적 개념이지만 다양한 경험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Deci & Ryan, 1987). 이러한 경험적 결과들은 자기주장, 반항, 순종, 자기조절, 자기규제, 자기술선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측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용어들이 자율성을 표현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용어들이 연령대에 따라 다른 경향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자율성이 처음 형성되는 시기, 즉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연구는 자율성을 성취동기(mastery motivation), 자기주장(self-assertion), 반항(defiance), 순종(compliance)과 같은 용어로 측정했다. Grolnick 등(2006)은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Kelley 등(2000)은 24-36개월 걸음마기 유아를 대상으로 성취동기를 측정하였다. 성취동기란 영아가 환경을 탐색하고 숙달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이며 어떤 활동에 도전하는 흥미와 인내심으로 표현된다(Jennings, 1993, Kelly et al., 2000에서 재인용). 이들의 연구에서 성취동기는 실험실 상황에서의 과제 수행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어머니의 민감한 돌봄 및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이 영아의 성취동기를 높인다고 하였다. Crocenberg와 Litman(1990)은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자율성을 자기주장(self-assertion), 불순종(noncompliance), 순종(compliance)과 같은 개념으로 측정하였다. 이옥임 등(2008) 또한 2세 영아를 대상으로 순응, 자기주장, 반항 세 가지를 통해 영아의 자율성 시도를 연구하였다. Haswell 등(1981)은 부정주의(negativism)로 자율성을 측정하였다. 부정주의는 반대행동(oppositional behavior)과 저항(defiance)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성인의 요청을 수행하기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생후 18개월에서 2년 사이에 나타나며, 유아가 숙달을 이루고 독립에 대한 욕구를 채워가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영아 및 걸음마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율성 연구들은 영아가 자신을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독립심과 자율성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동기, 자기주장, 반항, 순종과 같은 개념으로 탐구되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자율성을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탐색한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이는 아동기에 중요한 과업인 학업 성취에 자율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학령기 아동의 자율성은 자기효능감으로 측정되었다(Ng et al., 2004).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86; 신향숙·장운옥, 2001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았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았다(이송이, 2006; Ng et al, 2004; NICHD, 2008). 전반적으로 부모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율성을 지지하고 아동중심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학령기 아동의 자율성 습득에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기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는 자기규제, 자기통제, 자기조절과 같은 개념으로 측정되는 경향을 보였다(곽혜경, 1998; 곽혜경·조복희, 1999, 김미혜·윤호열, 2005; 김은미, 2006; 김지아, 2002; 안미경, 1996). 자기규제란 유아가 특정 상황에서 바람직한 목표를 위해 또는 사회나 부모의 요구 및 기준에 맞게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김미혜·윤호열, 2005). 이는 심리사회적인 것으로 유혹저항, 만족지연, 충동억제와 같은 과제로 측정된다. 자기조절은 외적인 통제 없이도 선후 요인을 파악하여 내적 통제에 의해 내재화된 규칙을 따라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이다(김민정, 2008). 그러나 유아의 자율성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자조기술과, 자신이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이 뒷받침될 때 가능함(이경아, 2006)을 고려할 때 자기조절이나 규제뿐 아니라 자조기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자조기술은 적응기술의 하나로 한 개인이 자신을 향한 발달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하여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Goldberg et al., 2009) 자조기술은 착탈의, 몸치장, 식사, 배변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자조기술 연구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임미향, 2009; 한연숙, 2000; 유재연·이준석, 2005; Carter et al., 1998). 왜냐하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들은 특히 장애아동이 학교나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임미향, 2009).

그러나 자조기술은 독립의 증거이며, 유아 자신에게 요구 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 및 사회적 적응과 정서적 성숙을 반영함(김승국·김옥기, 1995)을 고려할 때 자조기술은 발달장애를 가진 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에게도 중요한 이슈이다. 자조기술은 유아기에 기대 되는 발달과업으로 유아의 발달적 성취를 나타낸다. 즉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업적 성취, 행동적 적응 등에서의 자율성이 이 시기 아동의 발달과업으로 측정되는 것과 같이(Grolnick & Ryan, 1989), 유아기때는 자조기술의 습득 정도가 유아의 자율성 발달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자율성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자조 기술에 초점을 두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자율성을 유아기에 습득하게 되는 자조 기술에 착안하여 연령과 성별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에 따른 차이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자조기술에 대한 연구의 중심 개념이다(Holman & Bruininks, 1985; Reschly, 1982, Goldberg et al., 2009에서 재인용). 여러 연구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조기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보편적인 표준을 도출하기보다는 문화나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 대상집단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여러 연구들이 일반 집단과 장애 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장애의 진단을 위한 지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Goldberg 등(2009)의 연구에서는 3~6세 베트남 유아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Goldberg et al., 2009). 오승아(2007) 또한 0-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여 발달장애 유아를 위한 척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조기술은 이와 같은 일반 집단과 특수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장애의 진단뿐만 아니라, 일반 집단의 발달 지표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조기술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연령에 따라 자조기술이 어떠한지를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살펴보고 그들의 자조기술을 높이기 위한 지도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의 자조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Kuczynski 등(1987)은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직접적인 명령보다 제안, 요청, 정중한 명령과 같이 간접적인 명령을 할 때 자기주장 빈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 통제는 효과가 낮지만 미소 짓기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 행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Lytton, 1980, Crockenberg & Litman, 199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통제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으나, 한편으로는 어떠한 부모의 통제 기술과 아동의 순종 간에도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있다(Kuczynski et al., 1987).

이와 같이 보다 어린 연령의 유아들에게 어떠한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없다. 그러나 이 시기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과 지도가 유아의 자율성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유아기때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부모의 제안을 쉽게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Mogharreban & Nahikian-Nelms, 1996). 이에 부모는 더 강압적인 지도방식을 고수할 수 있고 이는 유아의 긍정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아기때 유아의 발달과업인 자조기술을 적절히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람직한 부모양육방식을 고려할 때, 지도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맥락에 따라 부모의 지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Lytton(1980)은 어머니들이 자유놀이 상황에서는 아동중심적인 지도기술을 자주 사용하나 제한되어 있는 맥락에서는 명령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따라 유아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달라진다(Lytton, 1980, Crockenberg & Litman, 1990에서 재인용). Grolnick 등(2002) 또한 맥락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에 대한 부모의 지도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식사지도이다. 2세에서 5세 사이는 유아의 음식선호도 및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Mogharreban & Nahikian-Nelms, 1996). 이 때 유아에게 얼마나 어떻게 먹을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은 자율성 발달과 자기규제의 발달을 위한 기초가 된다(Mogharreban & Nahikian-Nelms, 1996). 그런데 이 시기 유아는 호기심이 많고 종종 반항적이며,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사용할 기회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새로운 음식 공포증으로 인해 음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양육자와의 관계를 시험하기 위해 식사를 거부하기도 한다(Satter, 1978, Mogharreban & Nahikian-Nelms, 1996에서 재인용). 따라서 식사 때 부모와 유아 사이에 스트레스적 상황이 유발된다. 이에 부모의 여러 식사지도 유형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식사지도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기 유아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식사지도 방식이 유아의 자조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색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식사를 지도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부모의 지도방식이 유아의 자조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의 지도의 효과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Dweck과 Bush(1976)는 성인이 부정적 피드백을 하는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더 과제 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반면 남아는 성인의 압력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Dweck & Bush, 1976, Boggiano, et al., 1991에서 재인용). 반면에 NICHD(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감한 자율성 지지가 남아의 경우에만 유의한 학업 성취를 가져왔

다고 하면서, 남아가 보다 취약집단이라고 하였다. Prior 등(1993)은 3-8세 사이에 남아와 여아는 서로 다른 발달과정을 보였으며 남아가 더욱 많은 적응 문제를 보였다고 하였다. 부모의 지도방식이 남아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을 고려할 때, 부모의 식사지도방식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의 자조기술 습득을 이 시기 발달과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유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율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율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9곳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6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35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각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교사를 통해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54부이다. 이 중에 응답이 부정확한 것 37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1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한 어머니의 최저 연령은 25세, 최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은 35.3세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최저 연령은 28세, 최고 연령은 52세이며 평균은 37.7세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41.8%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86%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 101명(45.9%), 사무직 39명(17.7%)이며,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 76명(34.5%), 자영업 62명(28.2%)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서 연구 대상은 대부분 중산층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자조기술

유아의 자조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Doll(1965)의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를 김승국·김옥기(1995)가 번안한 '사회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타당화된 척도이다. 이 검사는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의 6개 항목, 117문항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자조 유목에 있는 문항 중 3-6세에 해당하는 질문 10문항을 사용하였고 대답은 3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서 '외투를 혼자 벗는다' 항목

에 대하여 예(2점), 가끔(1점), 아니오(0점) 중에 답을 고르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자조기술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일치도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사용한 문항내적일치도는.771에서.812 사이에 있으며 자조기술 문항 총계의 문항내적일치도는.812이다. 문항내적일치도가.70이상일 때 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충족된다(Nunnally, 1978, 유재연·이준석, 2005에서 재인용)고 하므로 본 연구에서 얻은 문항내적일치도는 만족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식사지도유형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Hughes 등(2005)의 양육자 식사지도유형 질문지(Caregiver's Feeding Styles Questionnaire)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였다. 그리고 아동학 박사 2인과 교수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CFSQ는 기준에 Birch 등(2001)이 개발한 아동식사지도 질문지(Child Feeding Questionnaire)가 통제적 방식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여 통제와 허용 행동을 묻는 문항을 골고루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척도이다. 질문지 문항의 예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요구(demandingness)와 반응성(responsiveness) 두 가지 항목의 점수에 따라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네 가지 식사지도유형으로 분류된다. 요구와 반응성 점수가 모두 평균 이상이면 권위적 유형, 요구 점수는 평균 이상이나 반응성 점수는 평균보다 낮으면 권위주의적 유형, 요구 점수는 평균보다 낮지만 반응성 점수는 평균 이상이면 허용적 유형, 그리고 요구와 반응성 점수가 모두 평균 이하이면 방임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요구와 반응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이 척도의 개발자들의 연구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을 참고로 하였다(Hughes et al., 2005; Hughes et al., 2007).

검사-재검사 신뢰도 결과 요구 항목의 Pearson 상관이 .85, 반응성 항목의 경우는.82로 나타났다(Hughes et al. 2005). 또한 이 척도를 일본 아동들에게 적용한 Geng 등(2009)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도가.65-.90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사용이 타당하다고 검증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사용한 문항내적일치도는.855에서.875사이로 만족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3. 자료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율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3-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표 1> 자조기술 척도의 구성 및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와 내적일치도

문항번호	내 용	M	SD	Cronbach α
1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1.81	.418	.809
2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1.91	.337	.797
3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1.60	.595	.815
4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1.80	.503	.771
5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1.63	.627	.812
6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1.89	.326	.807
7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1.85	.415	.789
8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1.68	.561	.775
9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1.78	.508	.775
10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1.69	.574	.795

<표 2> 양육자 식사지도유형 질문지 문항의 예

유형	문항번호	내용
요구	1	내 아이가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
	2	내 아이가 식사를 하면 음식이 아닌 어떤 것을 보상으로 준다고 약속한다.
	7	내 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안된다고 한다.
	11	내 아이에게 '빨리 먹어라'라고 이야기한다.
	12	내 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반응성	3	내 아이가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이 더 재미있게 보이도록 배치한다.
	6	왜 먹어야 하는지 아이에게 설명한다(예: "우유를 마시면 튼튼해져")
	9	내 아이가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15	내 아이가 먹는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특성을 이야기한다.
	17	내 아이가 음식을 먹도록 돕는다(예: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준다).

### III. 연구결과

#### 1. 성별, 연령 및 식사지도유형에 따른 자율성

##### 1) 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 주효과

성별, 연령, 식사지도유형에 따라 자율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주효과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한 항목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F=8.083, p<.01)',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F=5.774, p<.01)',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F=4.141, p<.05)',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F=7.462, p<.01)',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F=9.337, p<.01)'이고 자율성 총계(F=9.914, p<.01)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한 항목은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F=3.456, p<.05)',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F= 2.930, p<.05)',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F=4.753, p<.01)',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F=4.432, p<.01)',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F=5.266, p<.01)',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F=4.765, p<.01)',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F=4.114, p<.01)'로, <그림 2>와 <그림 3>에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항목은 3, 4세와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항목은 3, 4, 5세와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항목은 3세와 5,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항목은 3세와 4, 5,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항목은 3세와 5,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자조기술 총계는 3세와 6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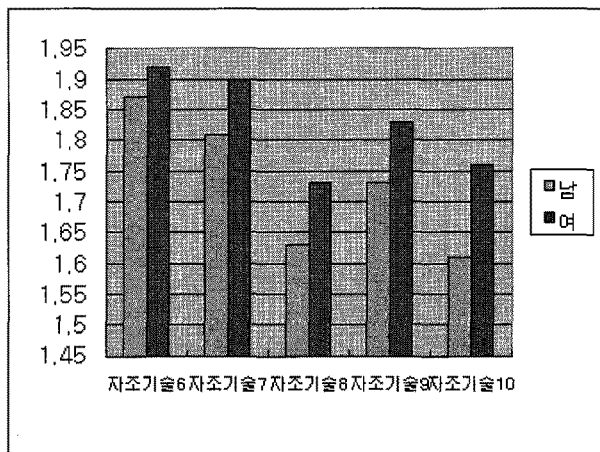
다음으로 유아의 자조기술에 대한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한 항목은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F=3.876, p<.05)'로 나타났으며 <그림 4>과 같다.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사후분석 결과 권위주의적 유형과 허용적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가 식사지도를 할 때 요구 수준이 높고 반응성 수준이 낮은 권위주의적 유형과 요구 수준이 낮고 반응성 수준이 높은 허용적 유형 간에 유아의 자조기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의 자조기술 항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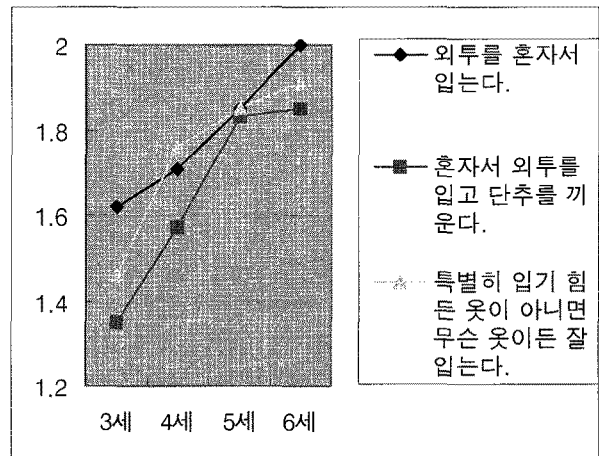
<표 3> 성별, 연령 및 식사지도유형의 주효과

변동원		SS (자승합)	df (자유도)	MS (평균자승)	F
성 별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446	1	.446	2.567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247	1	.247	2.466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122	1	.122	.381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370	1	.370	1.654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431	1	.431	1.194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795	1	.795	<b>8.083**</b>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934	1	.934	<b>5.774**</b>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1.157	1	1.157	<b>4.141*</b>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1.807	1	1.807	<b>7.462**</b>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2.800	1	2.800	<b>9.337**</b>
자율성 총계	76.216	1	76.216	<b>9.914**</b>	
연 령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166	3	.055	.318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497	3	.166	1.656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1.430	3	.477	1.486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2.319	3	.773	<b>3.456*</b>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3.173	3	1.058	<b>2.930*</b>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1.402	3	.467	<b>4.753**</b>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2.151	3	.717	<b>4.432**</b>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4.416	3	1.472	<b>5.266**</b>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3.461	3	1.154	<b>4.765**</b>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3.701	3	1.234	<b>4.114**</b>
자율성 총계	149.014	3	49.671	<b>6.461*</b>	
식사지도 유형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1.260	3	.420	2.419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253	3	.084	.842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3.730	3	1.243	<b>3.876*</b>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462	3	.154	.688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2.323	3	.774	2.145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163	3	.054	.553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676	3	.225	1.392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382	3	.127	.456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168	3	.056	.231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992	3	.331	1.102
자율성 총계	39.364	3	13.121	1.70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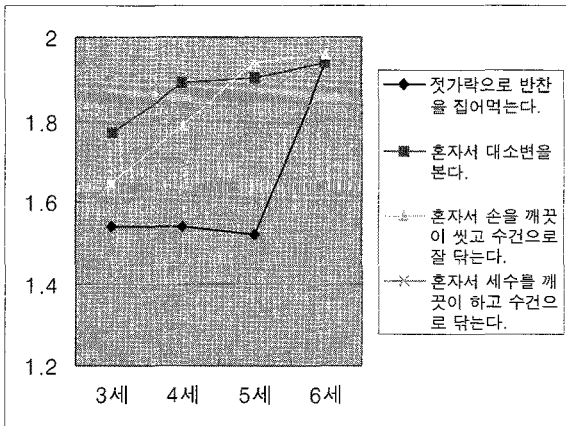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조기술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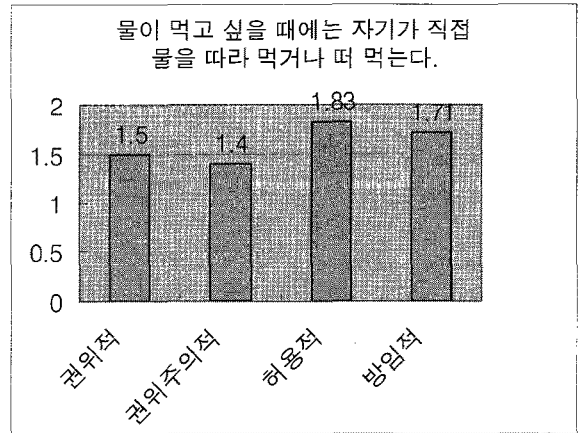
<그림 2> 연령의 주효과 1

<표 4> 연령의 주효과 사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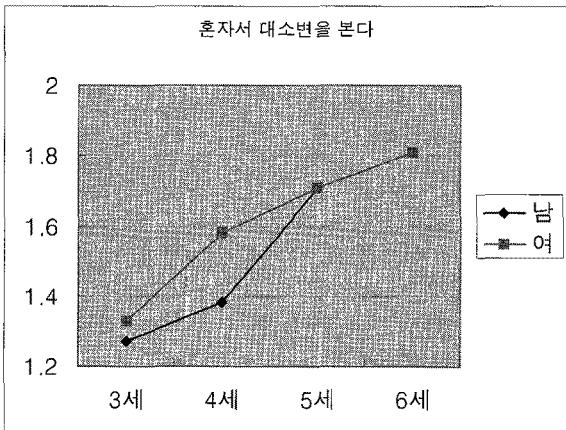
변동원	3세	4세	5세	6세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a	a	ab	b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a	a	a	b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a	a	a	a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a	ab	b	b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a	ab	b	b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a	b	b	b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a	ab	b	b
자조기술 총계	a	ab	bc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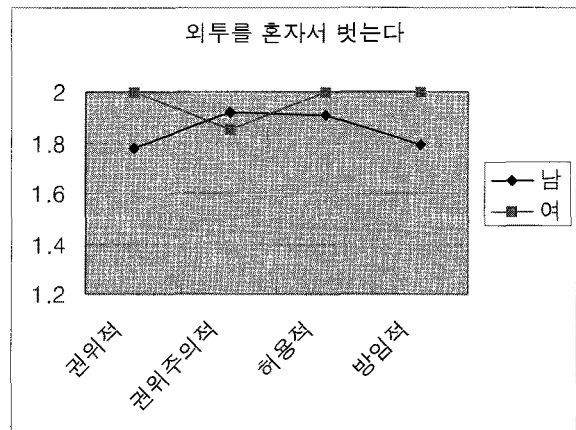
<그림 3> 연령의 주효과 2



<그림 4> 식사지도유형의 주효과가 유의한 자조기술 항목



<그림 5> 성별×식사지도유형 상호작용효과



<그림 6> 성별×식사지도유형 상호작용효과

‘유아가 물을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먹는 정도’에서 권위주의적 유형보다 허용적 유형의 부모지도방식에서 유아의 자조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 2) 유아의 자조기술에 대한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 상호작용 효과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의 상호작용효

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항목은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와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항목이다.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항목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고 여아일수록 자조기술 점수가 높았고 연령이 낮고 남아일수록 자조기술 점수가 낮았다. 또한 이 항목은 연령, 성별과 부모의 식사지도유형 모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도 유의

&lt;표 5&gt; 식사지도유형의 주효과 사후분석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방임적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ab	a	b	ab

&lt;표 6&gt; 성별, 연령 및 식사지도유형의 상호작용효과

변동원		SS (자승합)	df (자유도)	MS (평균자승)	F
성별 × 연령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006	3	.002	.011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249	3	.083	.831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511	3	.170	.531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473	3	.158	1.704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1.415	3	.472	1.306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900	3	.300	<b>3.052*</b>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572	3	.191	1.179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263	3	.088	.313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657	3	.219	.905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691	3	.230	.768
자율성 총계	9.017	3	3.006	.391	
성별 × 식사 지도 유형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228	3	.076	.438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1.106	3	.369	<b>3.682*</b>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634	3	.211	.659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1.210	3	.403	1.803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1.089	3	.363	1.605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056	3	.019	.190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128	3	.043	.263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448	3	.149	.535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557	3	.186	.766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282	3	.094	.314
자율성 총계	6.759	3	2.253	.293	
연령 × 식사 지도 유형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2.068	9	.230	1.324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986	9	.110	1.094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1.478	9	.164	.512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2.038	9	.226	1.012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1.709	9	.190	.526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1.513	9	.168	1.709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1.996	9	.222	1.371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4.230	9	.470	1.682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1.803	9	.200	.827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1.922	9	.214	.712
자율성 총계	40.540	9	4.504	.586	
성별 × 연령 × 식사 지도 유형	젖은 손을 수건으로 비교적 잘 닦는다.	2.186	9	.243	1.400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1.736	9	.193	1.927
	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물을 따라 먹거나 떠 먹는다.	4.047	9	.450	1.402
	외투를 혼자서 입는다.	3.379	9	.375	1.678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는다.	1.887	9	.210	.581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1.846	9	.205	<b>2.086*</b>
	혼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잘 닦는다.	1.415	9	.157	.972
	혼자서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운다.	2.901	9	.322	1.153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는다.	3.208	9	.356	1.472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는다.	2.220	9	.247	.822
자율성 총계	66.677	9	7.409	.964	

\*p&lt;.05, \*\*p&lt;.01, \*\*\*p&lt;.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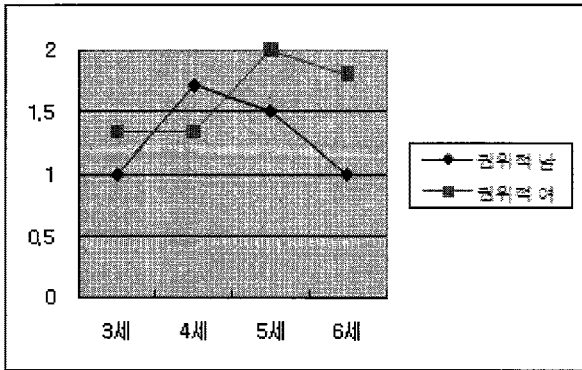
하게 달라졌다. 방임적 지도를 받는 4세 여아, 권위적 지도를 받는 5세 여아, 허용적 지도를 받는 5세 여아의 경우 혼자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점수가 가장 높았다. 남아의 경우 허용적 지도를 받는 3세 남아와 방임적 지도를 받는 6세 남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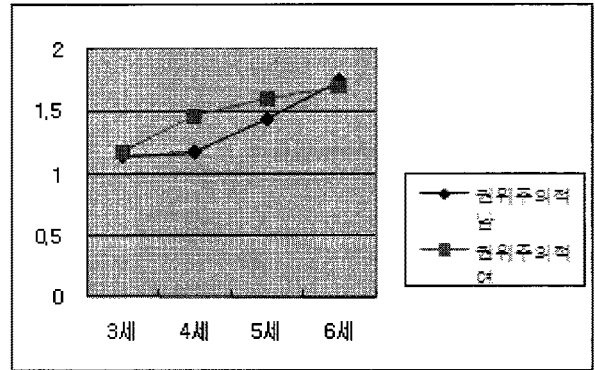


<표 7>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항목에 대한 성별×연령×식사지도유형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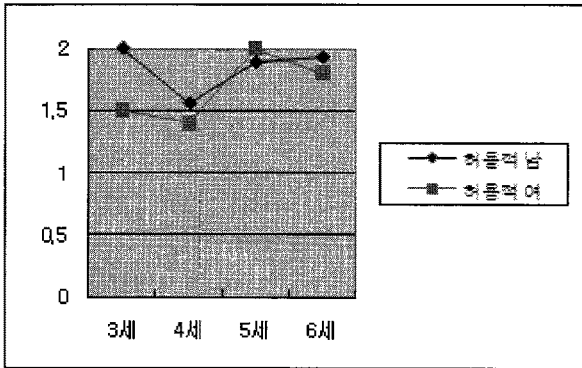
		식사지도유형										
		권위적 유형		권위주의적 유형		허용적 유형		방임적 유형				
연령	성별	남	여	연령	남	여	연령	남	여	연령	남	여
3세	남	1	1.33	3세	1.14	1.17	3세	2	1.5	3세	1.5	1.5
4세	남	1.71	1.33	4세	1.17	1.46	4세	1.56	1.4	4세	1.81	2
5세	남	1.5	2	5세	1.43	1.6	5세	1.89	2	5세	1.88	1
6세	남	1	1.8	6세	1.75	1.7	6세	1.93	1.8	6세	2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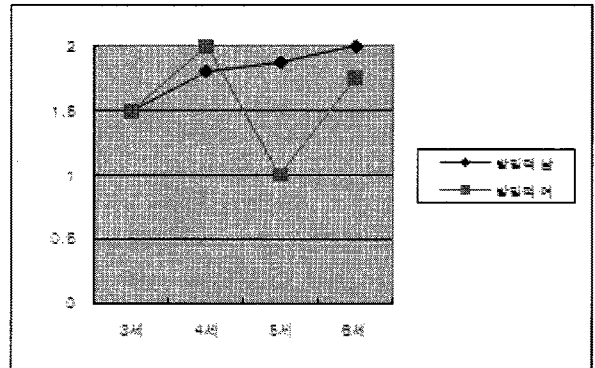
<그림 7> 상호작용효과 - 권위적 유형



<그림 8> 상호작용효과 - 권위주의적 유형



<그림 9> 상호작용효과 - 허용적 유형



<그림 10> 상호작용효과 - 방임적 유형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조기술 점수가 낮은 집단은 여아의 경우 권위주의적 지도를 받는 3세 여아와 방임적 지도를 받는 5세 여아였다. 남아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지도를 받는 3세와 6세 남아의 경우 자조기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한 정보는 <표 7>과 <그림 7>부터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외투를 혼자서 벗는다' 항목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위적, 허용적, 또는 방임적인 식사지도를 받는 여아의 경우 자조기술 점수가 높았고 권위적이거나 방임적인 식사지도를 받는 남아의 경우 자조기술 점수가 낮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이 유아의 자조기술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자조기술 발달을 위해 바람직한 식사지도유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이 유아의 자조기술에 미치는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자조기술 점수도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외투를 혼자서 입기', '젓가락으로 반찬 집어먹기', '대소변 보기', '손을 깨끗

이 씻고 수건으로 닦기', '외투 입고 단추 끼우기', '특별히 입기 힘든 옷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기', '세수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기'를 자율적으로 하는 능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아기에 여러 가지 자조기능이 발달된다는 기존 연구(유안진,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조기술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항목도 있었다.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기', '외투를 혼자서 벗기', '물이 먹고 싶을 때에 자기가 직접 따라 먹거나 떠 마시기'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높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항목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지 않았음은 적절한 부모의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젖은 손을 닦기가 연령 증가와 상관없다는 결과는 이것이 습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올바른 청결 교육을 위해 젖은 손을 닦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투 벗기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과 식사지도유형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외투를 혼자서 잘 벗지만 권위주의적인 식사지도를 받을 때에만 여아가 남아보다 점수가 낮다.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권위주의적인 식사지도를 받을 때에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성인의 인정이나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더 성취동기가 높아진다는 연구(Boggiano et al., 1991)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조기술을 성별에 따라 보면 전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앞서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소변보기', '손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닦기', '외투를 입고 단추를 끼우기', '특별히 입기 힘든 옷이 아니면 무슨 옷이든 잘 입기', '혼자서 세수를 깨끗이 하고 수건으로 닦기'에서 여아의 자조기술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3-6세 유아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앞서는 경향이 나타난 김승국 외(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자조기술은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스로 물을 마시기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사 시 부모가 유아의 욕구에 반응적이며 유아중심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허용적 일 경우, 유아는 물이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따라 먹는 능력이 높았다. 그러나 부모 중심적이고 강압적인 지도를 하는 경우, 유아는 물을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따라 먹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다.

Birch 등(1987)은 식사가 두 가지 요소로 통제되는데, 하나는 배고프다는 내적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식사 권유라고 하였다. 물을 먹고 싶을 때 스스로 따라 먹기 위해서는 자신이 물을 먹고 싶다는 내적 신호를 감지하고 이에 따라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물을 먹고 싶을 때에 스스로 따라 먹는 정도가 높은 것은 내적 신호에 반응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외적인 단서에 의존하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열량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

문에, 부모가 유아로 하여금 외적 단서에 의존하지 않도록 허용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Fisher & Birch, 1999; Jansen et al., 2007). 허용적인 식사지도유형은 유아가 식사하도록 물리적인 힘을 쓰거나 다른 보상 요인을 제공하는 등의 외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왜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거나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유아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지도유형이다(Hughes et al., 2005). 이와 같은 지도를 통해 유아는 내적 신호에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허용적 식사지도유형이 유아의 식사습관과 관련된 자조기술 함양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자조기술에 대한 유아의 연령, 성별 및 부모의 식사지도양식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자서 대소변을 본다' 항목은 연령이 높고 여아일수록 자조기술 점수가 높았고 연령이 낮고 남아일수록 자조기술 점수가 낮았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배변훈련을 더 빨리 완수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유안진, 1999). 즉 유아의 발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앞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여아가 더 이른 시기에 대소변의 자조기술을 습득하여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 항목은 연령, 성별과 부모의 식사지도유형 모두의 상호작용에 따라서도 유의하게 달라졌다. 방임적 지도를 받는 4세 여아, 권위적 지도를 받는 5세 여아, 허용적 지도를 받는 5세 여아의 경우 혼자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남아의 경우 허용적 지도를 받는 3세 남아와 방임적 지도를 받는 6세 남아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점수가 낮은 집단은 여아의 경우 권위주의적 지도를 받는 3세 여아와 방임적 지도를 받는 5세 여아였다. 남아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지도를 받는 3세와 6세 남아의 경우 자조기술 점수가 가장 낮았다.

대소변 훈련에 관한 연구는 대소변 훈련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아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Brazelton은 대소변 훈련이 27.7개월에서 33.3개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Brazelton, 1962). 그리고 Luxem과 Christophersen(1994)는 대소변 훈련이 생후 2~3년째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영아가 기저귀 대신 변기를 이용하게 되도록 훈련하는 시기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변기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완전한 도움 없이 스스로 대소변 처리를 마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 왜냐하면 변기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옷을 입고 벗는 것, 휴지를 사용하는 것, 물을 내리는 것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시간을 두고 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유아기까지 이어지는 발달과업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6세까지의 유아들의 대소변 자조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 4세 여아가 방임적인 식사 지도를 받았을 때, 5세 여아가 권위적 또는

허용적인 식사 지도를 받았을 때 대소변 자조기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각 연령대에 바람직한 식사지도 유형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에도 3세 남아가 허용적 식사 지도를 받을 때와 6세 남아가 방임적 지도를 받을 때 대소변 자조기술 점수가 가장 높아져, 부모가 식사 지도를 할 때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외투를 혼자서 벗기'에서 남아보다 전반적으로 자율성 점수가 높지만 권위주의적 지도를 받을 때만 유일하게 점수가 낮았다는 점에서, 여아에게 권위주의적 식사지도를 지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아는 권위주의적 지도를 받을 때만 유일하게 여아보다 점수가 높았다는 점에서, 남아에게는 권위주의적 식사지도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성인의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경우 과제 수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Dwek & Bush, 1976, Boggiano et al., 1991에서 재인용)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과제의 성취를 측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보다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발달과업인 자조기술에 있어서도 여아가 성인의 부정적 피드백에 취약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이와 같은 견해의 적용 연령과 과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유아의 자조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자조기술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본 연구는 차이가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그동안 유아기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가 심리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지만 자조기술의 발달에 대한 것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조기술을 유아기의 발달적 성취로 보고, 개인적 변인인 성별과 연령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양육유형을 식사지도의 맥락에서 살펴보아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부모의 지도유형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둘째, 이 연구는 유아의 자조기술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가 어떠한 지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부모의 바람직한 식사지도에 대한 연구가 척박한 현실에서 유아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지도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없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자 식사지도유형 질문지(Caregivers' Feeding Styles Questionnaire)는 기존의 식사지도유형 척도들의 문제점을 보완개발한 척도로 외국에서는 아동학, 영양학 및 보건학 등의 분야의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척도의 사용을 통해 부모의 식사지도에 대한 연구에 결과를 보태는 동시에 또 다른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

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리고 유아의 자조기술과 부모의 식사지도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양육자 식사지도유형 질문지(Caregiver's Feeding Styles Questionnaire)에서 요구와 반응성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식사지도유형을 구분하였는데, 표집 대상이 달라지면 평균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근나화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이에 보다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혜경·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곽혜경(1998).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혜·윤호열(2005). 유아의 내적외적변인이 자기규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3), 185-197.
- 김민정(2008). 부모의 정서표현유형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승국·김옥기(1995). *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은미(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어머니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아(2002). 자기조절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희(2008).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 자율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향숙·장윤옥(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89-202.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승아(2007). 발달장애 유아를 위한 한국판 생활적용행동기술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9, 175-207.
- 유안진(1999).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문음사.
- 유재연·이준석(2005). 초등학생용 적응행동검사 개발 연구 I.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2), 257-277.

- 이경아(2006). 사회적 발달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율적 행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송이(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부모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
- 이옥임 · 이해경 · 박성희(2008). 2세 영아의 자율성 시도와 어머니의 조절전략에 관한 연구-식사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 보육행정연구, **12(1)**, 133-153.
- 임미향(2008).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유아의 자조기술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연숙(2000). 뇌성마비 유아의 자조기술에 미치는 물놀이 프로그램의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하우.
- Birch, L. L., Fisher, J. O., Grimm-Thomas, K., Markey, C. N., Sawyer, R., & Johnson, S. L.(200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hild Feeding Questionnaire: a measure of parental attitudes, beliefs and practices about child feeding and obesity proneness. *Appetite*, **36(3)**, 201-210.
- Birch, L. L., McPhee, L., Shoba, B. C., Steinberg, L. & Kreibiel, R.(1987). 'Clean up your plate': effects of child feeding practices on the development of intake regulation. *Learning and Motivation*, **18(3)**, 301-317.
- Boggiano, A. K., Main, D. S., & Katz, P.(1991). Mastery motivation in boys and girls: the ro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motivation. *Sex Roles*, **25(9/10)**, 511-520.
- Brazelton, T. B.(1962). A child-oriented approach to toilet training. *Pediatrics*, **29(1)**, 121-128.
- Carter, A. S., Volkmar, F. R., Sparrow, S. S., Wang, J., Lord, C., Dawson, G., Fombonne, E., Loveland, K., Mesiboy, G. & Schopler, E.(1998). The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Supplementary Norms for Individuals with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8(4)**, 287-302.
- Crockenberg S. & Litman, C.(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61-971.
- Deci, E. L., & Ryan, R. M.(1987).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24-1037.
- Fisher, J. O. & Birch, L. L.(1999). Restricting access to foods and children's eating. *Appetite*, **32(3)**, 405-419.
- Geng, G., Zhu, Z., Tanaka, T., & Ando, D.(2009).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Child Feeding Questionnaire(CFQ)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ppetite*, **52**, 8-14.
- Goldberg, M. R., Dill, C. A., Shin, J. Y. & Nhan, N. V.(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Vietnamese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with preschool-age children.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 592-602.
- Grolnick, W. S., & Ryan, R. M.(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 Grolnick, W. S., Frodi, A., & Bridges, L. J.(2006). Maternal control style and the mastery motivation of one-year-old. *Infant Mental and Health Journal*, **5(2)**, 72-82.
- Grolnick, W. S., Guarland, S. T., DeCorcey, W., & Jacob, K.(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others' autonomy support: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1)**, 143-155.
- Haswell, K., Hock, E., & Wenar, C.(1981). Oppositional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theory and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30**, 440-446.
- Hughes, S. O., Power, T. G., Fisher, J. O., & Mueller, T. A.(2005).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parenting styles in a child-feeding context. *Appetite*, **44**, 83-92.
- Hughes, S. O., patrick, H., Power, T., Fisher, J. O., Anderson, C. B. & Nicklas, T. A.(2007). The impact of child care providers' feeding on children's food consumption. *Journal of Developmentla and Behavioral Pediatrics*, **28(2)**, 100-107.
- Jansen, E., Mulkens, S. & Jansen, A.(2007). Do not eat the red food!: Prohibition of snacks leads to their relatively higher consumption in children *Appetite*, **49(3)**, 572-577.
- Kelley, S. A., Brownell, C. A., & Campbell, S. B.(2000). Mastery motivation and self-evaluative affect in toddlers: longitudinal relations with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71(4)**, 1961-1071.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rmius-Brown, O.(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Luxem, M. M. & Christophersen, E.(1994). Behavioral

toilet training in early childhood: research, practi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5(5), 311-396.

Mogharreban, C. & Nahikian-Nelms, M.(1996). Autonomy at mealtime: building healthy food preferences and eating behaviors in young children. *Fami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4(1), 29-32.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8). Mothers' and fathers' support for child autonom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4(4), 895-907.

Ng, F. F., Kenney-Benson, G. A., & Pomerantz, E. M.(2004). Children's achievement moderates the effects of mothers' use of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Child Development*, 75(3), 764-780.

Prior, M., Smart, D., Sanson, A., & Oberklaid, F.(1993). Sex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djustment from infancy to 8 yea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2), 291-304.

- 접수일 : 2009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11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2월 04일